

## 미래고객 대상 국내 육성 쌀의 소비자 선호도 조사

김정주<sup>1\*</sup>, 고재권<sup>1</sup>, 정종민<sup>1</sup>, 정지용<sup>1</sup>, 김보경<sup>1</sup>, 이점호<sup>1</sup>

<sup>1</sup>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

### [서론]

최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될 정도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,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93.6kg(2000년)에서 61.9kg(2016년)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. 미래고객인 중고등 학생의 국내 육성 쌀의 선호도 조사 및 그들의 식습관을 파악하여 향후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. 따라서, 미래고객 대상 국내 육성 쌀의 소비자 선호도 및 식습관 조사를 위해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.

### [재료 및 방법]

미래고객인 중고등학생의 쌀 선호도 조사를 위해 식미검정용 쌀로서 신동진, 수광 및 일반 유통쌀(혼합미)을 이용하였고 설문지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의 식습관을 조사하였다. 중학생 66명(남학생 35명, 여학생 31명), 고등학생(남학생) 30명 등 96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밥의 씹히는 정도(질감)와 밥맛을 일반 유통쌀과 비교 평가하였고, 설문지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의 식습관(하루 밥먹는 횟수, 아침밥의 필요성, 쌀밥의 선호도 등)을 조사하였다.

### [결과 및 고찰]

중고등학생 96명을 대상으로 한 식미검정 결과, 학생들은 일반 유통쌀에 비해 국내 육성 벼 품종의 밥의 질감과 밥맛이 모두 좋다고 평가하였다. 밥의 질감 및 밥맛이 일반 유통쌀에 비해 신동진쌀이 좋다고 평가한 학생은 각각 75.0%, 68.8%였고, 수광쌀은 각각 63.5%, 65.6%였다. 남학생의 경우 신동진쌀은 밥의 질감이 좋다는 평가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밥맛이 좋다는 평가가 높았다. 반면, 수광쌀은 그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나 품종별 밥의 질감 및 밥맛은 성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. 혼합미(일반 유통쌀)보다 단일 품종(신동진, 수광)이 품종 고유의 밥맛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고부가가치 브랜드미로 시장에 유통할 때 브랜드미의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. 국내 육성 쌀에 대해 밥의 질감과 맛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어 쌀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최고품질 쌀의 유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. 또한, 하루에 세번 밥 먹는 학생은 64.6%,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은 72.9%였고, 그 중에 빵(8%)보다 밥을 먹는 비율(84.0%)이 높았다. 아침식사를 해야 한다는 비율이 67.0%였으나 아침에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. 혼합밥보다는 쌀밥을 선호하였고 쌀밥은 찰기가 있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. 중고등 학생들은 아침식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. 또한, 아침 밥을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67% 정도로 나타나 급후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.

### [사서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(과제번호: PJ01197604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.

\*주저자: Tel. 063-238-5235, E-mail. jjkim74@korea.kr